

2025

조선일보

Style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ecial Edition

270

years  
of Watchmaking Experience

바쉐론 콘스탄틴, 2백70년 동안 지속된 워치메이킹의 여정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A Dive into the Heart of the Vacheron Constantin Archives

완벽하고 폭넓은 시간대를 비추는 방대한 문서가 2백70년 동안 지속되어온 역사를 조명한다.

## Editorial

탁월한 위치메이킹의 세계에서 바세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로 설립 270주년을 맞이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위치메이킹 매종인 바세론 콘스탄틴은 거의 3세기에 걸쳐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내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위치메이커 장-마크 바세론(Jean-Marc Vacheron)과 그 뒤를 이은 후계자들, 그리고 파트너 프랑소아 콘스탄틴(François Constantin)이 명성을 쌓아 올린 방식은 두 가지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는 정밀한 위치메이킹 기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식 예술이다. 이들은 인그레이빙, 에나멜, 기요세 기법 등을 예술적 장인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오늘날에도 이 탁월한 장인 정신은 메티에 다르(Métiers d'Art) 컬렉션을 통해 계승되고 있으며, 매종의 컬렉션 전반에도 그 정신이 녹아 있다. 우리는 <피가로 레전드>를 위해 제네바 인근 플랑 레-와트(Plan-les-Ouates)에 위치한 바세론 콘스탄틴 매뉴팩처를 찾았다. 모든 것이 전통과 헤리티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2004년에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가 설계한 건물이며, 1880년부터 매종의 상징인 말테 크로스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귀중한 아카이브와 함께,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깊은 열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 이노베이션 디렉터 산드린 동기(Sandrine Donguy)와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는 바세론 콘스탄틴 역사뿐 아니라, 스위스 하이 위치메이킹 산업 전체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모든 기록을 경신한 '솔라리아'까지, 매종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과 특별한 함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와 더불어 이번 기념비적인 해에 발표된 특별한 신제품들을 소개했다.

**표지**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울트라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 La Première/Les Cabinotiers, Solaire, Ultra Grand Complication - La Première) © Le Truc - Benoît Lapray / Vacheron Constantin

**1** 20세기 초 제네바 물랭가(Quai des Moulins)의 바세론 콘스탄틴 워크숍. © Vacheron Constantin **2** 캐비노티에(Les cabinotiers), 트리뷰트 투 푸르 드 릴. © Stojan / Vacheron Constantin **3** 1755년, 'JM Vacheron à Genève' 서명이 새겨진 매종 설립자의 최초 시계. © Nils Herman / Vacheron Constantin **4** 제네바의 바세론 콘스탄틴 매뉴팩처. © Vacheron Constantin **5** 2005년, 푸르 드 릴 손목시계. © Vacheron Constantin **6** 1955년, 매종 설립 200주년을 기념한 문서. © Vacheron Constantin

글 : 제롬 아노베르(Jérôme Hanover)

바세론 콘스탄틴 본사의 지하, 두꺼운 보안 문 뒤 일정한 온도와 습도 속에서 보존된 아카이브는 그 안에 함께 보관된 시계들만큼이나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총 400m에 걸쳐 수백만 페이지에 이르는 문서가 정리되어 있다. 가족과 관련된 문서, 세례 증명서, 혼인 서류, 사망 증명서 등의 복사본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문서는 1711년에 작성한 것이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생산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총 1천 권의 장부에는 1권당 약 4백 페이지, 페이지마다 6~12개의 모델이 빼곡히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은 1773년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모든 모델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무브먼트와 케이스에 새겨진 시리얼 넘버로 식별된다. 일종의 체계적인 카탈로그이자, 인증의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인 셈이다. 설명서와 드로잉, 그리고 이후에는 사진까지 더해진 이 기록물은 단순한 문서를 넘어 문화적 보물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보물은 서신 기록이다. 자크-바텔레미 바세론(Jacques-Barthémi Vacheron)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바세론(Abraham Vacheron), 비즈니스 파트너 프랑소아 콘스탄틴(François Constantin)은 물론, 고객과 소매업자와 나눈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어, 매종의 성장 과정부터 시대의 변화와 고객의 기대까지 생생히 담겨 있다. 이 아카이브가 특별한 이유는 온전함에 있다. 많은 브랜드들이 겪은 화재, 전쟁, 점령 등 수많은 역사적 위기를 피해온 덕분에, 아우르는 범위와 보존 상태 모두에서 유례없는 수준을 자랑한다. 이 기록들은 단순히 시간을 담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온 흔적이다. 1819년 7월 5일, 프랑소아 콘스탄틴이 자크-바텔레미 바세론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는 매종의 정신을 집약한 문장이 담겨 있다.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바로 이 문장이야말로 바세론 콘스탄틴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제조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1906년 밀라노 세계박람회에서 바세론 콘스탄틴은 스위스 위치메이킹의 정수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초로 헤리티지 시계 컬렉션을 구성했다. 고객들로부터 회수한 아이코닉하고 정교한 모델들을 선보인 매종은 그해 박람회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컬렉션'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고, 현재는 약 1천7백 점의 시계와 8백 점의 도구가 보관되어 있다. 그중 3백여 점은 세계 각지에서 계속 전시하며, 올해처럼 특별한 해에는 더욱 많은 작품을 공개한다. 1755년, 시계 장인들이 과학과 문화에 대한 열정을 지닌 학자이자 예술가로 여겨졌던 계몽주의 시대에 장-마크 바세론은 제네바에 자신의 위치메이킹 워크숍인 '캐비닛'을 설립한다. 당시 '아틀리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명칭은 훨씬 뒤에 등장한다. 바세론 콘스탄틴의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는 당시의 제작 환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제작 과정에는 하이 위치메이

킹이 발전하기 이전, 스위스 시계 위치메이킹 산업 환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 다이얼, 헨즈, 케이스 등 각 분야 장인들이 분업하는 구조였죠. 장-마크 바세론의 캐비닛은 부품을 조립하고 조율하며, 최종 완성하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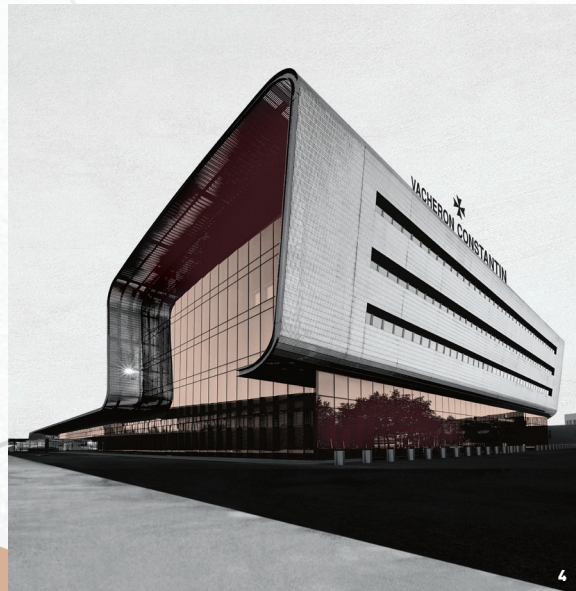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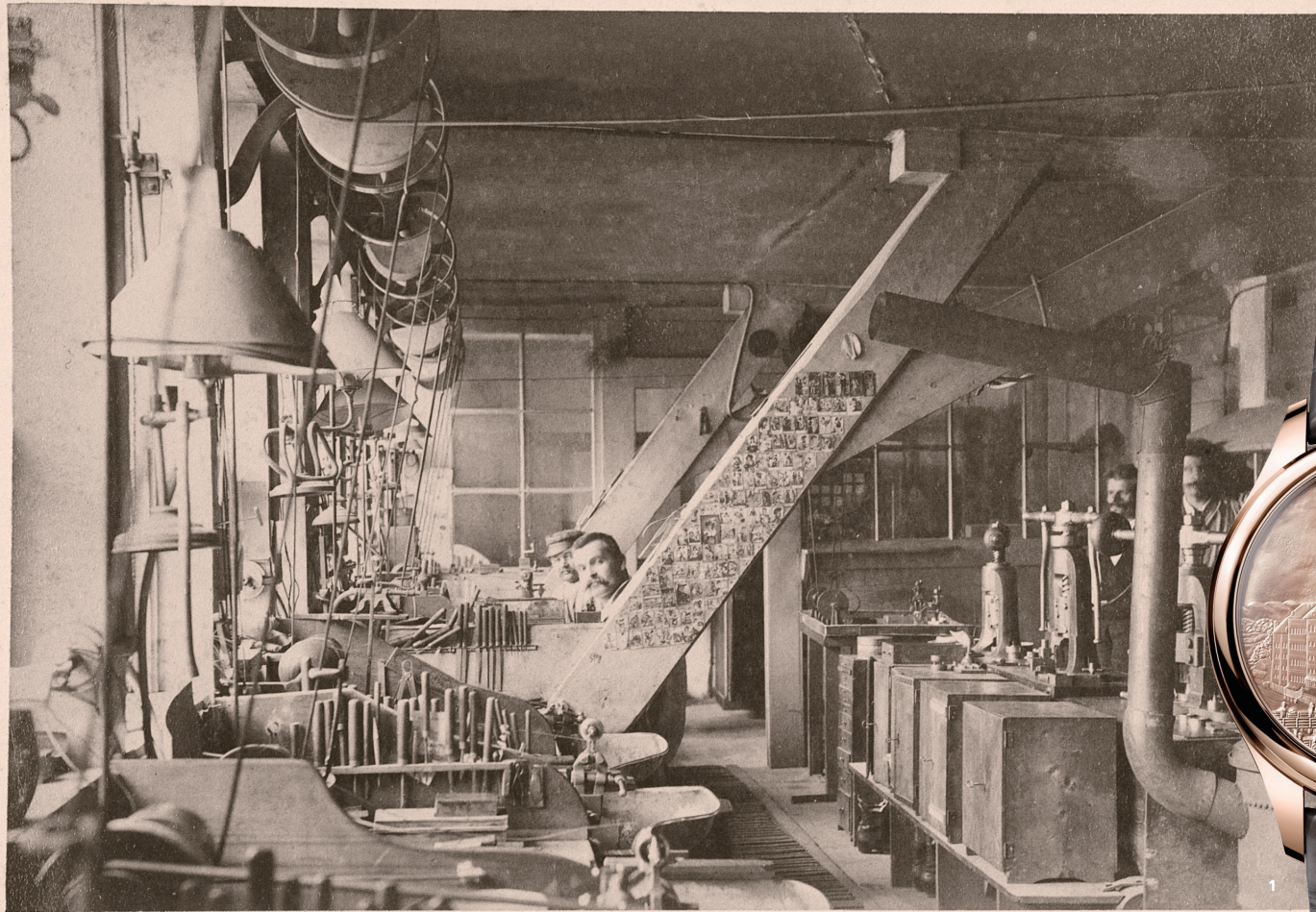
1755년에 제작된 최초의 바세론 시계 이후, 1785년 아브라함이 워크숍 운영을 이어받으며 모델들은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복잡해졌다. "1790년경에는 매종 최초의 캘린더 시계가 제작되었고, 1810년 자크-바텔레미 바세론이 경영을 맡은 이후에는 쿼터 리피터, 미닛 리피터, 그랑 소네리 같은 고도화된 차임 시계로 진화했습니다"라고 셀모니는 설명한다. 같은 시기, 에나멜링, 인그레이빙, 켈 세팅, 기요세 같은 장식 기술도 점차 정교해졌다. 이를 증명하는 예가 바로 1829년 제작된 점핑 아워 포켓 워치다. 인그레이빙으로 섬세하게 장식하고 켈 세팅한 이 시계는 현재 매종의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1819년, 프랑소아 콘스탄틴이 회사 지분을 인수하며 '바세론 & 콘스탄틴(Vacheron & Constantin)'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된다. 헤리티지 부서 책임자 시그리드 오펜슈타인(Sigrid Offenstein)은 이렇게 설명한다. "자크-바텔레미 바세론은 시계 장인이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박람회에 참가했고, 이탈리아 각지를 돌며 시계를 수리하고 자신이 만든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제네바에 남아 생산을 맡았죠. 하지만 곧 자크-바텔레미 바세론은 상업 활동을 위임하고, 브랜드를 제네바 밖으로 넓혀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만난 인물이 바로 파리 귀족 사회에 깊이 연결되어 있던 프랑소아 콘스탄틴이었다. 콘스탄틴의 폭넓은 네트워크는 바세론 콘스탄틴을 국제 무대에 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설립 이후 바세론 콘스탄틴은 기계식 기술과 수공예 기법 측면에서 독립 장인들과

밀접히 협력해왔으며, 이 전통은 퀴즈 위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후 매종은 다이얼이나 케이스 같은 전문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이어가면서도, 주요 기술을 점차 내부화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매종은 단순한 투 헨즈 무브먼트부터 가장 복잡한 킴프 라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브먼트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에나멜링, 기요세, 켈 세팅, 인그레이빙 등 네 가지 전통적인 장인 기술 역시 모두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6년 방동 그룹(현 리치몬트)에 인수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2백70년에 걸친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 진화는 결국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프랑소아 콘스탄틴의 말 한마디로 귀결된다.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아카이브 문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VACHERON CONSTANTIN 후원 · 공동 기획  
GENÈVE



1755

장-마크 바세론이 최초의 시계 제작 아틀리에를 열고 견습생을 고용함

1785

아브라함 바세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승계

1810

설립자의 손자 자크-바텔레미 바세론이 경영을 이어받음

1819

프랑소아 콘스탄틴이 동업자로 합류해 시계 및 손목시계 부문의 개발을 총괄,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매종의 모토 탄생

1880

매종의 상징인 말테 크로스 등장

1889

최초의 여성용 손목시계 출시

1906

제네바 푸르 드 릴 건물 1층에 첫 부티크 오픈

1955

패트리모니 컬렉션에 영감을 준 울트라-씬 칼리버 1003 제작

1977

설립 222주년을 기념해 222 모델 출시

1996

오버시즈 컬렉션 탄생

2004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가 설계한 새로운 건물을 플랑-레-와트(Plan-les-Ouates)에 준공

2025

설립 270주년을 맞아 기념 모델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공개





1

# The Cult of Beauty

바쉐론 콘스탄틴은 기계에 관련된 노하우를 넘어, 장인들이 예술가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미학에 대한 퀘스트를 통해 늘 타 브랜드와 차별화해왔다.

방사형 기요세를 새긴 실버 톤 다이얼은 안개 속 풍경에서 꽃다발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회화로 치면 그리자유와 스무마토가 어우러진 것 같은 분위기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안드레아 델 사르토(Andrea del Sarto),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의 회화는 물론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궁전 장식이나 18세기 프랑스 귀족 주택의 문 장식을 떠올리게 한다. 1780년에 제작된 이 다이얼은 메종이 초창기부터 장식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시각적 즐거움을 전하려는 의지가 깃들여 있다. 영경이나 아칸서스 잎 무늬를 넣은 상르베 또는 클루아조네 에나멜 장식, 양식화된 꽃이나 사실적인 꽃다발, 플랭크 배경에서 돋보이는 문장이나 모노그램, 알프스 또는 토스카나의 풍경, 성모와 아기 예수, 부르주아 인테리어의 초상화, 진주, 보석, 카메오 등 바쉐론 콘스탄틴의 다이얼과 케이스는 미니언처 예술의 무대가 되어왔다. 18세기, 장-마크 바쉐론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 예술 장인들과 협업했다. 그들은 '장식 예술'이라는 명칭도 없던 당시에, 코담배 상자, 알약 상자, 오토마통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장식 예술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지만, 퀴츠 시계와 스포츠 시계가 등장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죠.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 기술들을 되살리며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트 크리스티앙 셀모니의 설명이다.



2

역사적 유산에서 정당성을 찾는 메종은 시계 장인 예술의 현대적 표현을 부흥시켰다. 에나멜링, 기요세, 점 세팅, 인그레이빙 등 네 가지 전통적인 기술을 자체적으로 통합했고, 새롭게 증가한 수요와 함께 독립 장인들과의 협업도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오늘날 다양한 모델에 컬렉션과 상관없이 적용되며, 유니크 피스를 제작하는 캐비노티에(Les Cabinotiers) 부서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돋보이는 무대는 역시 '메티에 다르(Métiers d'Art)'라는 이름을 그대로 적용한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은 루브르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고궁 박물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과 문화의 세계로 확장됩니다. 시간, 예술, 문명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하죠." 프 로덕트 & 이노베이션 디렉트 산드린 동기의 설명이다. 매년 한두 차례 새로운 모델들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이미 긴 리미티드 에디션 리스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에나멜 배경에 중국의 12간지를 인그레이빙한 모델,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물줄기와 금빛 산, 아우구스투스의 흉상,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 다리우스의 사자, 타나스의 스핑크스, 위대한 탐험가와 항공 개척자들에게 바치는 시계까지. "이 컬렉션이 지난 두 가지 과정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포용하는 동시에, 탁월한 장인 정신과 전통 예술 공예 기법을 끊임없이 계승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산드린 동기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처럼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미적 탐구는 메티에 다르 컬렉션에만 머물지 않는다. 모든 모델의 다이얼 구성, 형태의 조화, 비율 등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1950년대까지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는 인

하우스 디자인 부서를 두지 않았습니 다. 케이스 제작자들이 모델을 디자인해 매뉴팩처에 제안하는 방식이었죠." 크리스티앙 셀모니는 시계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을 이렇게 회고한다. 1970년대 들어 시계 전문 디자이너들이 등장했는데, 바쉐론 콘스탄틴과 함께 '222' 모델을 선보인 요르그 하이섹(Jörg Hysek)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외부 디자이너와 매뉴팩처 간의 독점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바쉐론 콘스탄틴도 1989년에 그 흐름에 합류했다. 이후 2002년부터 메종은 제품 디자인 및 개발 부서를 통합했으며, 오늘날 모든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기술과 전문성이 깃든 스위스 시계 산업 생태계 속에서 제네바는 전통적으로 수공 마감 기법, 소재, 진귀한 메탈의 차별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가 최고급 시계의 도시라 불리는 이유다. 그 명성은 눈에 보이는 디테일은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깃든다. 예를 들어 무브먼트 플레이트의 모든 부품을 손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앵글라주는 오직 시계를 열어본 위치메이커만 감상할 수 있는 기술의 정수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메종에서는 섬세한 손길에 오브저의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 장인 예술은 기술과 함께 우리의 노하우를 완성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각기 다른 기술과 전문성이 깃든 스위스 시계 산업 생태계 속에서 제네바는 전통적으로 수공 마감 기법, 소재, 진귀한 메탈의 차별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가 최고급 시계의 도시라 불리는 이유다. 그 명성은 눈에 보이는 디테일은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깃든다. 예를 들어 무브먼트 플레이트의 모든 부품을 손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앵글라주는 오직 시계를 열어본 위치메이커만 감상할 수 있는 기술의 정수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메종에서는 섬세한 손길에 오브저의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1 루브르 박물관과의 논부산 협업으로 이뤄낸 메티에 다르(Métiers d'Art) 트리뷰트 투 그레이트 시계(라이제이션, © Eric Sauvage / Vacheron Constantin 2 1780년, 포켓 워치 © Nils Hermann / Vacheron Constantin 3 빛으로 드러나는 조각 예술, 캐비노티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파닉스(Le Cabinotiers Grande Complication Phoenix), © Vacheron Constantin 4 그리자유(Grisaille) 에나멜 제작 과정 © Vacheron Constantin



3



# At First Glance

바쉐론 콘스탄틴의 전문성을 상징하는 유니크 피스와 메종을 상징하는 컬렉션은 차별화된 미학과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드러내며 메종의 정신을 담아낸다.



“ 패트리모니 (Patrimony)라는 이름을 통해 메종이 자신들의 역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새롭게 재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 ”

바쉐론 콘스탄틴의 아이코닉한 컬렉션, 트래디셔널(Traditionnelle), 패트리모니(Patrimony), 히스토리크(Historiques), 피프티식스(Fifty-six), 오버시즈(Overseas), 에제리(Égérie) 등 모든 컬렉션은 그들만의 뚜렷한 뿌리와 전통을 보여준다. 그중 일부는 이름 자체로 헤리티지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여러 모델로 구성된 히스토리컬 컬렉션은 숫자로 인해 복수형으로 불리며, 워치메이킹 디자인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별된 타임피스들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메종의 철학을 명확히 드러낸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토리컬 222(Historiques 222)다. 1977년 바쉐론 콘스탄틴 설립 222주년을 기념해 탄생한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계로, 일체형 케이스, 홈이 새겨진 베젤, 일체형 브레이슬릿, 그리고 5시 방향에 자리한 말테 크로스가 특징이다. 빈티지 제품을 위한 경매에서 수집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이 모델은 2022년에 컬렉션으로 다시 돌아왔다.

히스토리컬의 또 다른 아이콘은 아메리칸 1921(American 1921)이다. 1920년대의 열정을 품은 이 시계는 쿠션 형태의 케이스뿐 아니라, 1시 30분의 오른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배치한 다이얼로 독창성을 드러낸다. 이는 손목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 중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 결과 수직 축은 10시 30분이며, 스몰 세컨즈는 다이얼의 3시 방향에 있는 서브 다이얼이므로 4시 30분에 위치하고, 숫자 12시와 일직선을 이루는 1시 30분 방향의 크라운은 쿠션형 케이스의 곡선 모서리에 자리하며, 재즈의 선율을 떠올리게 하는 유려한 디자인을 완성한다.

에제리는 여성을 위한 컬렉션으로, 원형 케이스와 오프센터 크라운이라는 독특한 요소를 공유한다. ‘패트리모니’라는 이름에서도 메종이 헤리티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다. 1957년 탄생한 조바형 시계는 2004년 컬렉션에서도 그 정신을 이어간다. 이탈리아 작가이자 기업가 프랑코 콜로니(Franco Cologni)는 자신의 저서 〈시간의 예술가〉에서 이 컬렉션을 순수하면서도 최상의 절제, 절대적 우아함의 상징이라 평했다. 절제된 디자인, 슬림한 케이스, 곡선 핸즈가 이를 잘 보여준다. 2개의 핸즈로 이루어진 버전은 세련미가 돋보이지만, 진정한 도전은 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모델에서도 이러한 간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다. 9시에서 3시 사이에서 호를 그리는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절제된 문페이스, 완벽한 가독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브 다이얼을 탑재한 퍼페추얼 캘린더까지, 모든 디테일이 이 컬렉션의 품격을 더한다. 오버시즈는 1932년 모델에서 계승된 육각형 베젤로, 말테 크로스를 연상시키며 스포츠 시계의 정수를 보여준다. 1996년부터는 특허 받은 시스템을 통해 스트랩 교체가 간편해지며 스틸, 러버, 카프 스킨 등 다양한 소재로 여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래디셔널은 이름처럼 메종의 역사와 DNA를 존중하며, 단순한 투 핸즈부터 투르비용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계단식 원형 케이스, 얇은 베젤, 플루티드 케이스 백, 레일웨이 미닛 트랙, 제네바 바통 아워 마커, 도핀형 핸즈가 18세기 제네바 하이 워치메이킹의 미학적인 코드를 계승하며, 각 케이스에 모든 무브먼트,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워치메이킹의 전문성을 담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1 1994년, 메르카토르(Mercator). © Vacheron Constantin 2 히스토리컬 아메리칸 1921 (Historiques American 1921).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3 1966년, 크로노미터 로얄(Chronomètre royal). © Vacheron Constantin 4 그랜드 레이디 칼라 (Grand Lady Kalla), 주얼 워치. © Le Truc / Vacheron Constantin 5 히스토리컬 222 (Historiques 222) 스틸 버전.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6 1972년, 손목시계. © Vacheron Constantin 7 오버시즈(Overseas) 울트라-씬 스켈레톤 퍼페추얼 캘린더.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8 히스토리컬 콘 드 바슈 1955 (Historiques Cornes de Vache 1955). © Vacheron Constantin 9 패트리모니 매뉴얼 와인딩.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10 트래디셔널(Traditionnelle) 매뉴얼 와인딩 27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 The Journey Toward Com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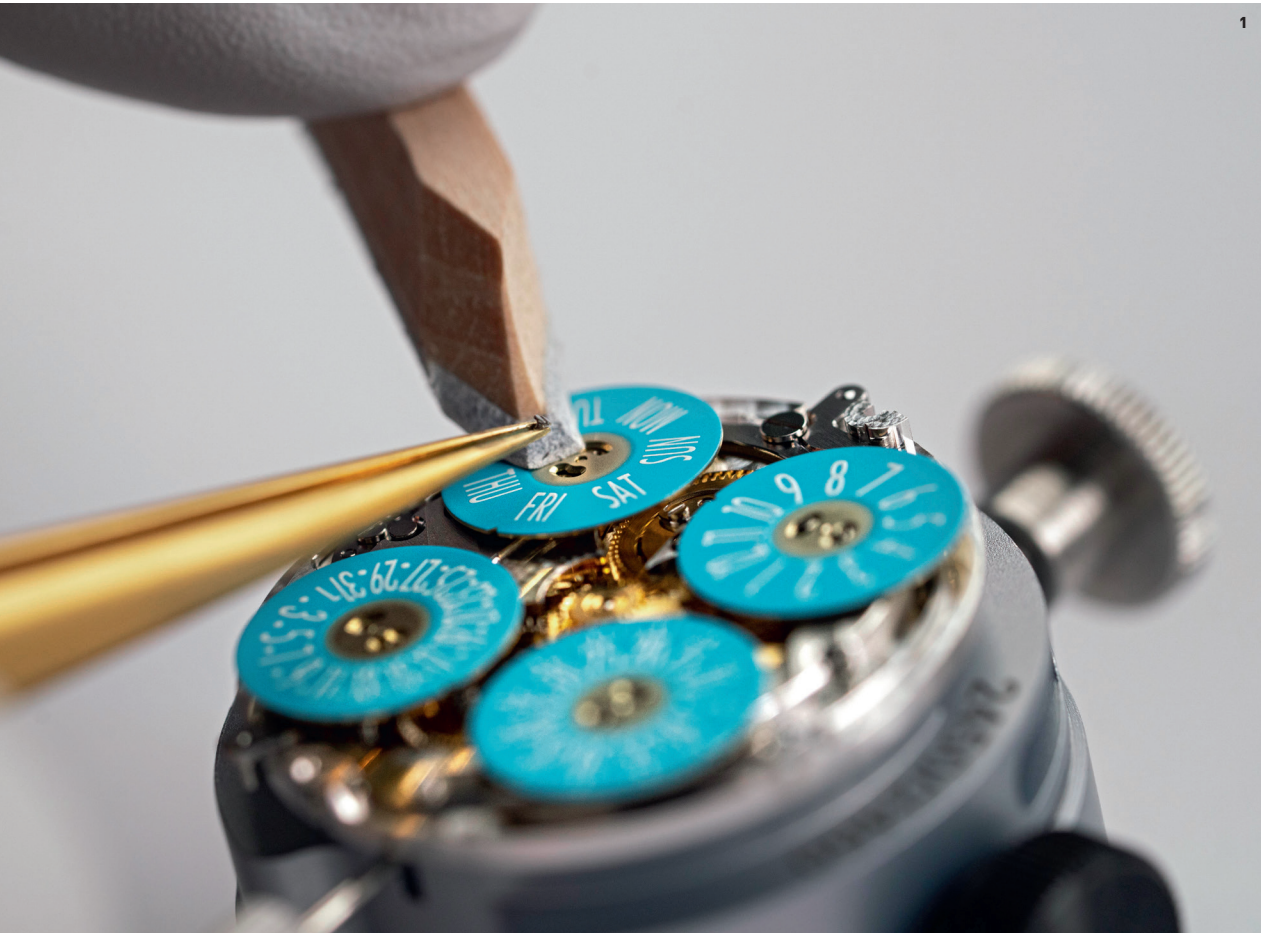
소네리(sonnerie), 차임 메커니즘, 천문, 크로노메트리, 소형화까지. 2백70년 동안 바쉐론 콘스탄틴은 기계적 탁월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올해, 이 모든 위업을 하나로 집대성한 솔라리아(Solaria)를 선보였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초기 모델이며, 당시에는 바쉐론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시계들은 2개의 핸즈를 갖춘 포켓 위치였다. 곧 손침이 추가되면서 시간 측정의 정확성이 한층 높아졌다. “저희가 제작한 최초의 캘린더 시계는 17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쩌면 그 전에도 몇 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는 말한다. 이후 바쉐론 콘스탄틴은 캘린더를 갖춘 천문 시계뿐 아니라, 차임 워치, 쿼터 리피터, 미닛 리피터, 그리고 그랑 소네리로 이어지는 복잡한 워치메이킹의 발전을 이룩해 된다. 보관된 사신에 따르면, 1806년 한 프랑스 고객이 바쉐론 콘스탄틴에 최초의 쿼터 리피터, 즉 15분마다 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주문했다. 그로부터 20여 년 뒤, 아틀리에에서는 첫 그랑 소네리 시계가 완성되었다. 이 시계는 15분마다 시간을 울리고, 푸셔를 누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 시간을 들려주었다. 메커니즘 내부에는 2개의 서로 다른 음을 내는 공이 자리하며, 2개의 해머가 이를 두드려 소리를 낸다. 매시 정각에는 낮은 음으로, 15분은 짧게 이어지는 두 번의 음으로, 분은 가장 높은 음으로 시간을 알

렸다. 케이스는 정밀하게 조율된 공이 내리 4도 음정을 또렷하게 울려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알리는 공명 상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음향 공학의 정수가 깃들어 있다. 또 다른 난관은 이 컴플리케이션이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을 위한 두 번째 배럴과 에너지 분배를 조율하는 앵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워 소네리가 폭주하거나 미닛 소네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교한 메커니즘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조율한다. 크리스티앙 셀모니는 이렇게 회상한다.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은 매종 설립 초기 수십 년 동안 발전해왔으며, 19세기 후반에는 크로노메트리 분야에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는 정밀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와 제네바, 브장송, 런던 천문대가 주관한 경연 대회를 위해 개발한 시계들을 통해 입증되었죠.” 20세기 초 손목시계의 등장과 함께 소형화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매종은 퍼페추얼 캘린더,

문페이즈 등 천문 기능 시계를 개발하며 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이 워치메이킹 메종이라면 자체 무브먼트를 개발하고 그 기술을 완벽히 마스터하는 것이 당연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의 기준을 적용해 무브먼트를 만들었죠. 내부에서 개발한 모든 메커니즘은 1886년 제네바시가 설립한 독립 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고 품질의 보증인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획득합니다. 이 인증은 하이 워치메이킹으로 유명한 제네바가 아닌 곳에서 제네바 명칭을 내세우려는 브랜드를 막기 위해 탄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탁월함을 향한 시계 제작의 퀘스트는 끝없는 여정이다.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지평은 더욱 넓어진다. 이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이자, 기술적 역량과 수작업에서 요구되는 정밀함은 물론 탁월한 설계 능력까지 요구되는 인간적인 도전이다. 2025년 4월 워치스 & 윈더스에서 공개된 솔라리아(Solaria)는 바쉐론 콘스탄틴 설립 270주년을 기념하는 시계다. 기록을 경신한 이 시계는 직경 45mm, 두께 15mm 미만의 양면 케이스에 4개의 컴플리케이션을 적용했다. 미닛 리피터, 문페이즈와 월령을 포함한 퍼페추얼 캘린더, 세컨드 타임존, 투르비옹,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 만으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세계의 24개 타임존, 계절, 춘분과 추분, 동지와 하지, 태양의 위치와 고도, 일출과 일몰 시각, 자오선 통과 시각, 지평선 위 태양고도, 항성시(지구 자전의 실제 주기를 나타내는 23시간 56분 4초), 군사차(연간 평균화하지 않은 태양 시간 측정), 황도대의 별자리, 그리고 특정 별이나 별자리가 관찰자의 시야의 중심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별자리 지도까지 담았다. 또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카릴용의 네 가지 음을 재현하는 소네리도 탑재했다. 총 1천5백21개의 부품과 13개의 특허가 이 위대한 걸작을 완성했다. 이 절대적 업적은 다시 한번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메종의 모토를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솔라리아가 현재 갖추고 있는 가능성의 정점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언젠가 바쉐론 콘스탄틴이 이를 넘어서는 날이 올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1 칼리버(Calibre) 2460 G4/2. © Vacheron Constantin 2 캐비노티에(Les Cabinotiers) 버클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 Vacheron Constantin 3 앵글라주 수작업. © Vacheron Constantin 4 벨런스와 벨런스 스프링. © Sully Balmassière / Vacheron Constantin 5 트래디셔널 오픈페이스(traditionnelle openface). 세 가지의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메종의 역사에 바치는 현대적 오마주. © Clement Rousset / Vacheron Constantin 6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Les Cabinotiers, Solaria, Ultra Grand Complication), 울트라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 Le Truc / Vacheron Constan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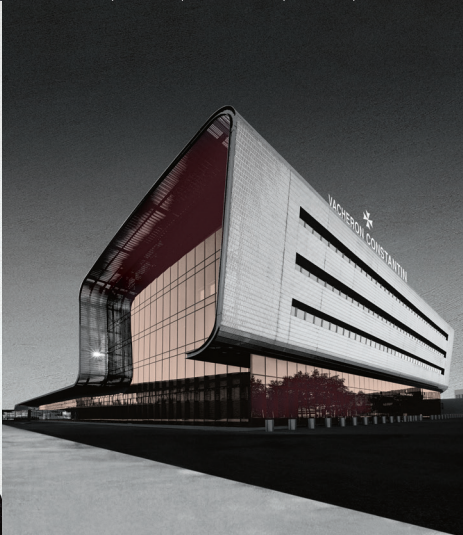


## 스타일 &amp;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 프로젝트 &amp; 이노베이션 디렉터 산드린 동기와와의 대화.

3) 크로스티앙 뫼리니, 타탈을 해리타지 디레터, © Vacheron Constantin 3 스트린  
 동기, 프르메르 & 이노베이션 디렉터, © Vacheron Constantin 3 에메리 문예자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4 캐비티노에 미넨 리페터 투르비용 (Les  
 Cabinotiers Répétition Minutes Tourbillon),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5 캐비티노에 셀라스티아 아르로노비츠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Les Cabinotiers Celestina Grand Complication), © Vacheron  
 Constantin 6 트래디셔널 테윈 비트 퍼페추얼 칼렌더 (Traditionnelle Twin Beat  
 Quantième Perpétuel), 2019 GPHG 노벨메이선 수상, © Vacheron Constantin

STYLECHOSUN.COM 대표 방정오 편집장 김유미 패션·뷰티 디렉터 성경민 디자인 나느컴퍼니 교열 이정현 광고·마케팅 박영하, 김준석, 이정희, 유우희 제작·기획?재문 노영준분해.재판 법원 인쇄 테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라온 비즈니스센터 110호기시 및 광고문의 02-749-5665





1755년 제네바에서 하이 워치메이킹의 탁월함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정, 인내, 전문성을 향한 도전.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  
결코 끝나지 않을 도전.

바쉐론 콘스탄틴은 탁월함을 추구해 온 역사의 270주년을 기념합니다.

*the Quest*



**VACHERON CONSTANTIN**  
GENÈVE

VACHERON-CONSTANTIN.COM